



보이십니까?

청 렬(淸廉) [명사]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싱싱한 대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언제나 푸를것 같은 대나무가 어느 부분이 막혀 땅의 영양분이 흐르지 않으면 색을 잃고 썩어갑니다. 막힌 것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 썩어갈 것입니다. 공동체 속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는 푸르른 대나무처럼 아름답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개인의 이익을 취한다면 썩어가게 됩니다. 한 개인이 제모습을 잃어갈때 공동체도 썩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Happy Together, KEPCO E&C  한국전력기술

201702



Family



www.kepcO-enc.com

newpower, newstandard



2017년 2월호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04 **Focus** | '역풍장범(逆風張帆)'의 2017년 다짐 외

08 **청백리** | 청렴윤리 특강 실시 외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2 **Benchmarking** | 'Nuclear Plant Safety'를 다녀와서

14 **일하며 즐기며** | 한기산우회 일본 후지산과 남알프스 종주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22 **新성장지도** | 얼음과 눈과 강이 함께하는 강원도 겨울 축제

28 **Storytelling** | 할아버지께 타인의 분노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다

30 **기자칼럼** |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치 않은 이야기들

32 **건강 100세** |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 꺾병일 수도

34 **생활과 과학** | 조류독감과 의 전쟁, 예방법은 없을까?

36 **Culture** | Exhibition, Theater, Book, Movie

38 **KEPCO E&C NEWS** | 2017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외

42 **한기氏の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44 **Inside Outside** | 참사랑봉사단 외

46 **인포메이션** | 스웨이드 소재 신발, 세탁 후 손상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47 **에코포토** | 빈발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통권 421호 · 발행인 박구원
발행일 2017년 2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위즈(070-8808-7990)

역풍장범(逆風張帆)의 2017년 다짐

- 중점 경영방향으로
'핵심기술', '성장기반', '열린조직' 제시



2017년도 시무식이 1월 2일 대강당에서 임직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구원 사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2016년 한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마음으로 기술혁신과 내실강화, 노사화합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을 격려하며, 어둠을 깨고 새벽을 여는 닭의 해, 정유년(丁酉年)을 성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주력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적 위기, 단위사업 리스크관리 실패가 불러올 회사 실패의 위기, 내부에서 발현될 수 있는 비난과 냉소, 분열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살아있는 한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더 심각한 것은 위기에 대한 응전과 도전의 투지마저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2017년을 희망의 시간으로 만들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경영 키워드로서, '핵심기술', '성장기반', '열린조직'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7년 한해, 맞바람을 향해 돛을 펴는 '역풍장범(逆風張帆)'의 정신을 특별히 당부하면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위대한 뱃사공이 탄생하듯이 앞으로 펼쳐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신뢰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시무식은 직원들의 신년 영상메시지, 유공직원 표창, 2017년 건승을 기원하는 신년 하례인사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하고 새해 다짐

박구원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부사장 30여명은 1월 3일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박구원 사장은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이 예상되는 2017년이지만, 맞바람을 향해 돛을 펴는 '역풍장범(逆風張帆)'의 정신으로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응전하고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2016년도 지식경영(KM) 우수지식자료 포상 실시

2016년도 지식경영(KM) 우수지식자료에 대한 포상이 1월 2일 시무식 행사에서 실시됐다. 회사는 직원들이 지식경영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회사업무에 활용성이 높은 우수지식자료를 등록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지식자료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지식경영활동은 회사 자율학습조직(CoP : Community of Practice)인 스페셜리스트, 스터디그룹, EPRI그룹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회사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하여 전 직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에도 회사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식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포상에서는 최근 1년내 각 CoP그룹에서 KMS에 등록된 지식자료를 대상으로 부서장 추천과 기술심의 전문위원회 및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건이 2016년도 우수지식자료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상

- ▶ Thermal Stress Ratchet 완화 방안 (배관기술그룹 이봉희)

우수상

- ▶ 설계기준초과사고 및 중대사고 적용 시 인간공학 프로그램 영향성 (계측제어기술그룹 조선봉)
- ▶ Venturi Meter의 이론식 및 CFD 평가 (유체계통설계그룹 이근우)

장려상

- ▶ 확률론적 평가에 기반한 축방향 균열 존재 세관의 최적 정비기준 수립 (재료연구기술그룹 김현수)
- ▶ 옥외저장탱크 배관설계 (배관기술그룹 김동근)
- ▶ Subsequent License Renewal 기술동향 분석 (재료연구기술그룹 박진석)



엔지니어링 겨울캠프 개최

- 6년간 610여명 대학생이 거쳐간
미래 엔지니어 육성 프로그램

우리 회사의 미래 전력기술분야 엔지니어 육성 프로그램인 파워 엔지니어링 스쿨 (PES : Power Engineering School) 겨울캠프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실시되는 PES캠프는 2011년 7월에 처음 실시된 이래 610여명의 대학생이 거쳐갔다. 이번 PES 겨울캠프는 서울대, 카이스트, 전남대, 경북대 등 전국 34개 대학교 이공계열 61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학별로 추천을 받아 직무적합도 검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3박 4일의 PES캠프일정 동안 참가자들은 우리 회사 및 경주 드림센터에서 합숙교육을 받았다. 교육과정은 원자력 기본 교육 및 인문학 강의, 사장 특강, 문화탐방, 발전소 현장 견학, 단합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1월 10일 특강에서 박구원 사장은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의 역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원전기술 자립과정과 원자력 에너지의 경쟁력, 우리 회사의 국제적인 위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인문학, 수학, 경제학, 외국어 및 전공 지식과 인간관계, 육체적·정신적 건강 등을 대학생들 중 꼭 배우고 닦아야 할 기본 덕목으로 제시했다. 또한 논어와 맹자를 통한 배움의 자세와 지도자의 덕목에 대한 가르침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경주 문화탐방과 함께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및 월성원자력발전소를 1월 11일 견학했다. 현장 견학을 통해 강의에서 배운 설계기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수료식은 1월 12일 열렸으며 교육성적이 우수한 학생 2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PES 캠프는 수료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참가자들 간 SNS 밴드(BAND) 운영을 통해 캠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함께하는 청렴윤리
신뢰받는 한국전력기술

청렴윤리 특강 실시



회사는 청탁금지법 관련 부패예방관리를 주제로 한 청렴윤리 특강을 지난 12월 6일 본사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근무기강 확립 및 부정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임직원 700여명이 참석하였다. 박경호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의 주요내용, 예외 규정 및 위반행위 신고 절차 등을 설명해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왔으며, 특히 강의 후 질의응답을 통하여 참석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도 도움을 주었다. 회사는 앞으로도 청렴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청렴한 한국전력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함께하는 청렴윤리
신뢰받는 한국전력기술

2017년도 청렴윤리 다짐대회 실시



회사는 1월 18일 '청렴 : 1등급/1등급/A등급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동근 상임감사와 감사실 소속 직원이 참석하였으며,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7년도 중점추진 목표로 설정한 '공공기관청렴도평가 1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감사원 자체 서면평가 A등급' 달성을 다짐했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사회적 책임의 기본인 청렴도, 부패방지시책, 감사원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달성함으로써 공기업의 모범을 보이는데 임직원들의 관심과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회사는 기본과 원칙에 따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윤리 특강, 청렴도 향상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온라인 청렴윤리 교육 등을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밥이라 했다.
구수한 밥 냄새와
새콤달콤한 향에 설레는 오감,
김이 피어오르는 따끈한 찌개,
그릇의 정갈한 빛깔을 살피는 것도 좋다.

정성껏 차려낸 반찬들을
젓가락으로 먹기 좋게 조각내고
입안에서 골고루 뒤섞으며 천천히 씹고
생선 가시를 발라내고 밥 위에 올려주는
익숙한 손놀림,
마주앉은 사람에게 먹던 밥 덜어주는
무례한 친절에도 경계가 없어 좋다.

달그락 거리는 소리
간간히 뒤섞이는 담소,
식탁을 감싸고 흐르는 짧은 정적까지.
식사의 최종 목적은 배부름이지만
식사 중에 만발하는 감정들을 사랑한다.

어쩌면 행복은 그런 것일지 모르겠다.
목적지에 쫓힌 깃발이 아니라
살면서 마주하는 무수한 조각들,
사랑하는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다가
가슴 깊이 느끼고 품어 보는 것.

어렴풋한 생각에 조금 더 행복해진다.

‘Nuclear Plant Safety’를 다녀와서

MIT의 원자력공학과에서 주관하여 매년 개최되는 Nuclear Plant Safety(NPS) Course의 Program에 흥미를 갖고 오래전부터 교육 참가를 희망하였는데 2016년도 하반기에 기회가 주어졌다. 교육이 개최되는 보스턴은 미국 건국 2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미국이 영국에서 최초로 독립한 역사적인 도시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교육에 참가했다. 보스턴은 미국 청교도의 본거지로, 미국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대학이 창설된 이후 현재 60여 개의 대학이 모여 있는 교육도시이자 700여 개의 하이테크 기업이 모여 있는 경제도시이기도 하다.

인천공항에서 뉴욕-JFK 공항을 거쳐 보스턴-로건 국제공항에 도착, 그리고 보스턴 숙소 도착 까지 약 20시간이 소요되었다. 도착시간이 일요일 오후 3시쯤이었다. 보스턴은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숙소로 향했다. 아울러, 보스턴은 숙박비 및 물가가 미국 내의 다른 도시보다 비싼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MIT 기숙사를 사전에 신청했다. MIT 기숙사는 1인실이 제공되며, 화장실 및 샤워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이용하는데 약간은 불편한 점이 있다. 하지만 교육 장소까지 걸어갈 수 있고, 숙박비가 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지내보는 것도 좋다. 인터넷(www.housing.mit.edu)으로 사전 예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방 배정 메일 회신이 온다.

NPS Course는 원자력발전소의 최근 현안에 대하여 각국 전문가의 관점에서 강의가 진행된다. 강사 및 참가자가 모두 전문가급으로 구성되어서 관련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실 참가자 대부분이 영어권 국가(미국, 캐나다)이기 때문에 토론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였지만, 가능한 한 많은 질문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했다. 이번 교육은 매일 5개(총24개)의 기술 주제를 다루었으며, 강의 후 패널토론을 통해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의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다. 교육은 MIT 56 빌딩의 114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일반 강의실이어서 특별한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MIT Research Reactor 및 Laboratory Tour 등 연구시설에는 입구에서 사진촬영을 제외하고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및 개별 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인솔자의 통제 하에 교육이 진행되었다.

식사는 MIT 내 학생회관 및 주변 식당을 이용하였으며, 일본음식, 멕시코 음식, 샌드위치 및 핫도그 등이 주 메뉴였다. 저녁시간에는 MIT 내 학생회관 식당이 늦게까지 열리기 때문에 이용하면 되나, 주로 도심으로 이동하여 관광도 하면서 저녁을 해결하였다.



보스턴은 랍스터 샌드위치 롤과 수제 햄버거가 유명하니 반드시 한번은 먹어보길 추천한다. MIT 기숙사에서 약 10분정도 도보로 걸으면 MIT 시내가 있기 때문에, 산책 삼아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보스턴 찰스강을 건너 보스턴 시내 구경을 했다. 공공발전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종종 발전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교육 내용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다이치 사고에 대한 원인 및 후속조치들이 주를 이루었고, 디지털 I&C 관련 현안인 공통원인고장에 대한 주제들도 다루어 졌다. 또한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다가옴에 따라 폐로 또는 운영 연장에 대해 규제기관 및 산업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아울러 수명연장을 위한 기술개발 또는 연구비용을 산업체 및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명연장을 고민하고 있는 미국 원전의 운영 상황을 보고,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APR1400 모델이 미국에 지어질 것이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았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도 수명연장,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그리고 폐로와 같은 현안들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I&C 계통의 공통원인고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미국보다는 국내에서 더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미국 발전소의 경우 신규 발전소 몇몇을 빼고는 대부분이 아날로그 I&C 시스템으로 공통원인고장에 대한 논의들이 없다가 최근 들어 디지털 I&C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면서 인허가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후쿠시마 후속조치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다이치 사이트의 심층방어개념의 각 단계 목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하나하나 설명하였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던지 파악한 이후 심층방어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설계확장조건(DEC)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심층방어개념을 설정하는데 있어 설계기준, 다중고장사고 및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대상 사고 목록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또한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하는 심층방어능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추후 국내 DEC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은 발전소 안전관련 인허가 현안, 원인 및 규제방안, 해결방안, 안전성 관련 최신 국제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안전해석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현안을 만들어 내는 방법과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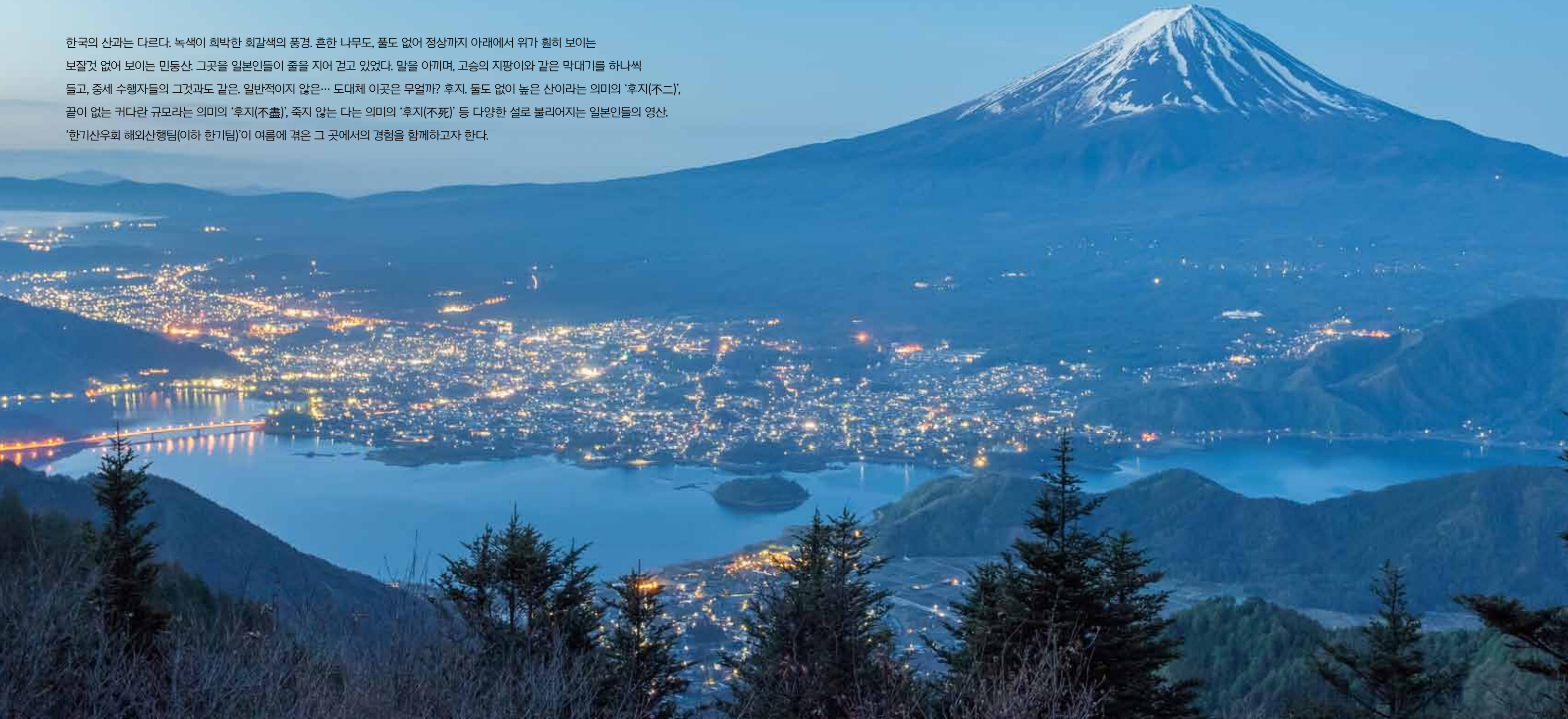
MIT는 방학기간에 매년 Short Program 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NPS Course도 매년 강좌가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도 비슷한 유형의 강좌가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보스턴 문화와 원전 안전성 관련 국제적 현안을 파악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 이 교육을 추천한다. E&C



한기산우회

일본 후지산과 남알프스 종주

한국의 산과는 다르다. 녹색이 희박한 회갈색의 풍경. 험한 나무도, 풀도 없어 정상까지 아래에서 위가 훤히 보이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민둥산. 그곳을 일본인들이 줄을 지어 걷고 있었다. 말을 아끼며, 고승의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중세 수행자들의 그것과도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도대체 이곳은 무얼까? 후지. 둘도 없이 높은 산이라는 의미의 '후지(不二)', 끝이 없는 커다란 규모라는 의미의 '후지(不盡)', 죽지 않는다는 의미의 '후지(不死)' 등 다양한 설로 불리어지는 일본인들의 영산. '한기산우회 해외산행팀(이하 한기팀)'이 여름에 겪은 그 곳에서의 경험을 함께하고자 한다.





후지산 산장 실내



후지산 산장 화장실



후지산 산장 실내



후지산 산행로(상행)

후지산 (3776m) (03:50)

분화구

10합목

9.5합목(3590m) (03:00)

구합목(3460m) (02:36)

팔합목(3250m) (02:03)

원조질합목(3010m) (01:34)

신질합목(2780m) (16:20숙박/08.19 01출발)

육합목(15:37)

오합목(2400m)



후지산을 오르는 일본인들

영산

이번 일본산행에서 돌아온 후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한국의 ‘영산’ 하나를 꼽아보라.” 하니. 집에 오, 육은 “영산?”하고 되물어보고, 다시 물어보면 “백두?” 정도 답하더라. “지리?, 설악?, 한라?” 이런 답변들도 간간히 나오고, 일단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의심 없이 누구나가 영험하다 여기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산은 아닌 듯. 이번에는 내 주변 회귀한 일본인들에게 물어보았다. 돌도 없이 “후지”하고 나오더라. ‘일본의 상징’, ‘신성시 여기는 곳’, ‘죽기 전 한번은 다녀가야 할 곳’. 그렇다 일본인들에게 ‘후지’는 그런 곳이었다. 때문에 터벅터벅, 타박타박, 절뚝절뚝 다양한 연령과 몸 상태에 따라 오르는 걸음은 달랐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말을 아끼고 하늘을 향한 좁은 길을 걷고 있었다.

시작 5합목(合目)

여러 종류의 후지 산행 코스 중 한기팀이 택한 곳은 정상까지 바로 오를 수 있는 후지노미야(富士宮)시 5합목(合目) 코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지는 일본인들이 ‘죽기 전 한번은 다녀가야 할 산’이다. 그 ‘죽기 전’이 5살이 될지, 30살이 될지, 90살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법. 때문 일본 정부는 다양한 연령의 등산인들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목(合目)’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듯하다. 5합목을 예로 들어보면, 이는 후지산의 최종 고도인 3,776m의 약 60% 지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바로 이 5합목 주차장이 한기팀 후지산 산행의 시작점이 된다. 5합목 주차장이 위치한 2,400m의 고도가 산행기점이니, 한라산의 높이가 1,916m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라산 보다 훨씬 높이 자동차가 날아가는 셈이다. 이곳에서 한기팀은 산행을 시작했다.

숙소 신(新) 7합목

후지 산행의 기점인 5합목 주차장에 내렸을 때의 기분은 ‘묘함’. 이곳에서 폭이 약 3m 내외의 비교적 완만한 등산로가 정상기준 70% 고도 정도에 위치한 오늘의 숙소인 신(新) 7합목 산장까지 이어진다. 시간은 오후 4시경, 안개는 자욱하고, 사람들은 자박자박 말도 없이 거의 바닥을 보며 그냥 걷는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니 60% 지점인 6합목 산장을 지나고 오늘의 숙소인 7합목 산장에 2시간여 걸려 도착했다. ‘그래 봤자 산’이라 생각했지만, 속도 없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놓아두고, 산장에서의 이른 저녁 후, 귀마개로 귀를 막고, 안대로 눈을 가리며 산장의 소란 속에 억지 잠에 들었다. 내일은 Summit~! 에베레스트나 K2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가슴이 콩닥콩닥.

10합목(정상)까지 옛(舊) 7, 8, 9, 9.5합목

자정. 후지 일출을 위한 이른 짐을 꾸린다. 최대한 단출하게, 놓을 것은 놓아두고, 숙소였던 신(新) 7합목 산장을 떠난다. 산장을 출발하여 경험한 총 4개의 옛(舊) 7, 8, 9, 9.5합목에는 숙식을 할 수 있는 산장이 존재한다. 5합목부터 후지의 정상인 10합목까지 각 산장간의 거리가 도보로 1~2 시간 정도로 생각할 경우, 촘촘하다 할 정도. 남녀노소, 몸 상태를 막론하고 ‘올라가다 배가 고프면 먹고, 지치면 쉬고, 어두워지면 자고, 급하면 용변을 보세요.’라는 의미 때문에 후지를 오르는 일본인들의 연령대는 다양하다. 젊은 이들은 하루 혹은 1.5일 만에 산행을 마쳤지만, 노인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며칠을 산장에서 묵어가며 산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상은?

한 나라의 영산인 듯 그 고도함인지, 3,000m를 훌쩍 넘는 고도 탓인지, 구름을 허리에 끼고 있어 인지 1년 중 일출을 허락하는 날이 적다는 그곳, 등산 중 꼭 한번은 주먹만한 장대비가 심술을 부린다는 그곳, 반대로 운이 좋아 맑은 날에는 정상 근처가 화산재로 이루어진 탓에 3걸음을 때면 2걸음을 미끄러뜨린다는 그곳. 그럼 한기팀은 과연 그곳, 후지산의 일출을 보았을까? 일단 사진부터 보고 가자.

후지산 일출



다시 돌아와 정상으로 가는 길. 오를수록 길은 좁아지고, 막바지 200~300m를 남겨놓는 결국 한 줄로 변한다. 아직 떠오르지 않은 태양 탓에 머리에 매단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랜턴들이 마치 순례자들의 행렬을 보고 있는 느낌 다시 마음이 숙연해진다. 힘도 들고, 생각도 멍해지고, 높은 고도와 새벽의 시간 덕에 춥고, 바로 전날까지 이어진 남알프스 산행 중 햇볕에 탄 목과 얼굴은 아프다. 타박타박. 만사가 귀찮아 다시 내 발만을 보며 오르다 보니, 어느새 정상의 신사가 나를 맞아준다. 분화구를 중심으로 주변에 조성된 둘레길을 따라 한 바퀴 돌아 보면 다시 나오는 정상 위의 정상, 겐가미네(3,776m)를 오르고, 하산 준비를 시작한다.



남알프스 산장-생맥주도 판다



남알프스 산장



후지산 정상의 정상

다녀와 보니

일본 열도 정중간에 꼭 하니 박혀있는 후지. 날이 맑은 날에는 사진처럼 수백 키로 떨어진 남알프스(이번 후지 산행 바로 전날까지 다녀온 2박 3일 남알프스 산행 중 직접 찍은 사진)에서도 보이고,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도 보인다. 많은 이들의 말 그대로 “일본인들이 보며 살아가는 산”. 우리들이 보고 자란 숲이 우거져 있고, 사람들은 드문드문 오르다 보면, 정상에는 정자 혹은 돌덩이가 ‘이곳이 이산의 정상이오’하고 알려

주는 여느 한국의 산과는 다른 수목경계 2,700m를 넘는 산, 그들만의 영산. 그리고 그곳을 오르는 산의 주인 일본인들의 목직한 태도가 나를 경건하게 했던 곳이었지만, 결국 산은 산. 후지산 정상에서 산 아래로 내려다보는 감정은 별거 없더라. ‘과연 한국의 영산인 백두에서 천지를 보아도 같은 무덤덤함이 이어질까?’하는 아쉬움이 들기는 하였지만, 들던 것과 같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지는 않았다는 말. 다만 생애 최초로 3,000m를 훌쩍 넘

는, 그리고 다큐멘터리 속에서만 보던 고산병 위험 지대인 2,500m 고지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뿌듯, 상쾌, 시원하고 기분도 조금은 좋더라.

더해서 모든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오를 수 있도록 한 ‘합목(合目)의 배려’는 은근 감동이었던 듯, 누구든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E&C](#)



후지산 분화구



후지산 산행로(하행)



후지산 한기산우회 기념 촬영

C ommunication

작은 암자에 사는 스님이
읍내에 불일이 있을 때마다
단골로 찾아가는 허름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그날도 점심시간이었는데
손님이라고는 달랑 두 명밖에 없습니다.
한 그릇에 4천 원이면 8천 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집세 주고
밥 먹고 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양이 많았든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계산을 치르고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화장실로 갑니다.
문짝은 여전히 반쯤 떨어진 채로
화장지는 바닥나 있고 심만 텅그러니 걸려 있습니다.

걸망을 뒤져 겨우 급한 걸 해결하고
밖으로 나온 스님은 곧장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30를 짜리 한 뭉치를 사다 주고 싶었지만
여비를 타서 쓰는 입장이라
스님도 여유가 없습니다.

날개로 파는 두루마리 휴지 2개를 사들고
콧노래 부르며 화장실로 다시 갑니다.
한 개는 반듯하게 걸어 놓고 또 한 개는
벽에 박힌 녹슨 못에 간신히 걸어 놓고 나옵니다.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감사의 인사를 건네자
손사래 치는 스님의 얼굴에 염화미소가 피어납니다.

얼음과 눈과 강이 함께하는 강원도

겨울축제

영하의 기온에 만물이 얼어붙었다.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이다.

외투의 부피는 무겁고 피부에 닿는 바람이 매섭다. 사람의 활동량이 줄어드는 이즈음, 한파가 몰아치는 강원도의 산과 강과 지류들은 두터운 얼음으로 뒤덮인다. 시간이 멈춘 듯한 얼음 강은 겨울과 강과 사람이 만나는 이색적인 놀이공간으로 변모한다. 지금 강원도 산간마을 곳곳은 겨울축제가 한창이다. 계절과 지역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강원도의 겨울 축제들을 소개한다.



01



02



03



05



04



06

잊혀진 겨울 놀이와 만나다 - 화천 산천어 축제

화천의 겨울은 길고 매섭다. 차가운 계곡바람과 맑은 물의 접점인 화천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얼음이 어는 곳 중 하나다. 화천 읍내를 가로지르는 화천천에서는 매년 1월, 축제가 열린다. 축제의 주인공은 일급수에서만 사는 귀하신 몸 산천어. 산천어는 1급수 맑은 계곡에서 서식하는 냉수성 토종 민물고기다. 송어의 친척뻘쯤으로 바다에 내려가면 송어가 되지만 민물에 남아 있으면 산천어가 되는 것이다. 5만평에 이르는 화천천은 산천어와 함께하는 다양한 겨울놀이들이 준비되어 있다. 두터운 얼음으로 뒤덮인 화천천 빙판에 구멍을 뚫고 견지를 이용해 산천어를 낚는 얼음낚시는 외신에도 보도될 만큼 독특한 풍경을 보여준다. 자리를 잘 잡아야하지만 손이 빠른 사람들은 하루에 5~6마리쯤은 너끈히 잡아간다. 낚시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다. 바로 산천어 맨손잡기. 그야말로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아야 한다. 시간 내에 산천어를 잡지 못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

다. '얼지 않은 인심'의 진행자가 구수한 입담과 함께 깜짝 산천어 선물을 던져주기도 한다. 이냉치냉의 묘미를 느끼기에 이만한 것이 없다. 축제장 곳곳에는 산천어를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구이터와 화센터가 있어 싱싱한 산천어 요리를 즉석에서 즐길 수 있다. 산천어는 민물회 중에서도 고급어종으로 열은 분홍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속살은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진하며 민물회 특유의 흠뻑새가 덜하다. 겨울놀이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음썰매와 스케이트다. 얼음 썰매장에서는 무릎이 저린 줄도 모르고 신나게 얼음을 지치는 아이들과 이에 못지않게 신이 난 어른들의 동심이 어우러져 화천천의 매서운 골바람을 머쓱하게 한다.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은 산천어 축제는 첫해 방문객수가 22만 명에 불과 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이제는 100만 명이 훌쩍 넘는 큰 축제가 되었다. 단순한 볼거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겨울놀이의 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화천 산천어 축제/ 1월 14일 ~ 2월 5일 (www.narafestival.com)



07



08



09

겨울요정 빙어와 만나다 -

인제 빙어 축제

소양호는 충주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로 1967년 소양댐이 만들어지면서 형성되었다. 소양호 상류인 인제는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어 사시사철 강태공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백담계곡과 내린천을 비롯 내설악 지류들이 흘러드는 이 청정호수는 겨울이면 300만 평의 빙원으로 변모한다. 매년 광활한 빙원 위는 겨울요정 빙어를 만나려는 이들로 이른 새벽부터 북새통을 이룬다. 겨울요정과와 만남, 그 정점에서 인제 빙어 축제가 펼쳐진다. 겨울 빙어는 먹이를 잘 먹지 않아 몸이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 맑아 공어, 은어로도 불리운다. 은빛의 담수어종으로 몸 길이는 10cm 내외인데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사이에 기름지느러미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요 작은 몸으로 간에 기별이나 갈까 싶지만 회, 매운탕, 무침부터 탕수어, 파전, 산적 등 먹는 방법도 다양하다. 빙어의 참맛을 느끼려면 잡은 즉시 초고추장에 푹 찍어 입으로 직행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비린내가 거의 없고 육질이 부드럽기 때문이다. 회에 거부감이 있다면 버너와 후라이팬을 준비해가는 것도 좋다. 즉석에서 튀겨먹는 방법도 있다. 빙어를 잡으려면 우선 얼음을 깨고 낚시대를 드리워야 한다. 빙어낚시는 초보자도 견지낚시로 쉽게 즐길 수 있다. 산란기를 맞아 소양호로 거슬러온 빙어들 덕분에 지금 소양호는 물 반 빙어 반이다. 목만 잘 잡으면 숙련된 강태공 못지않게 손맛을 즐길 수 있다. 물론 빙어 축제에 빙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눈썰매, 얼음썰매부터 이색적인 빙상 축구와 빙상 볼링 등 얼음판 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경운기 타기, 설피체험, 빙판굴렁쇠 등의 산촌겨울 놀이와 복돼지를 맨손으로 잡는 복돼지 잡기 등이 진행된다. 대형 빙어 수

07 드넓은 소양강에서 얼음구멍으로 빙어를 잡는 재미가 일품이다 08 짜만 드리우면 실사이 없이 빙어가 올라온다 09 태백산 당골광장은 축제와 함께 얼음조각 전시장으로 변한다 10 주목을 비롯해 멋진 나무들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족관에서는 새벽강의 물비늘처럼 아름다운 빙어 떼의 군무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빙어 낚시에 참가하지 못한 관광객들을 위해 열리는 빙어 무료 시식회는 강원도의 따뜻한 인정만큼 넉넉하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빙어

축제는 강원도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로 평가받았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축제장을 찾는다. 해마다 산란을 하러 어김없이 찾아오는 빙어처럼, 이제 소양호의 빙원은 겨울호수와 사람의 만남과 약속의 장이 되었다.

인제 빙어 축제/ 1월 21일 ~1월 30일 (www.injefestival.co.kr)



10



11

눈과 얼음의 축제 -태백 눈꽃 축제

백두대간이 지나는 산간마을 태백의 겨울은 순백이다. 청정한 태백의 눈꽃들은 눈부시게 희고 아름답다. 그 황홀한 설경의 중심에는 태백산이 있다. 태백산은 우리나라의 겨울산 중 덕유산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눈꽃 산행지다. 눈의 양이 많고 백두대간의 능선풍광이 좋은데다 등산코스가 비교적 유순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축제가 열리는 당골광장이나 유일사 등산로로 오를 수 있는데, 유일사 쪽이 길이가 가장 짧고, 산을 오르는 모미도 좋다. 태백산 정상부의 주목군락지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광을 제공한다.

하산할 때는 오궁썰매나 비료푸대를 이용해 내려오는 재미도 쏠쏠하다. 때를 맞춰 매해 1월이 되면 눈꽃 축제가 펼쳐진다. 대관령, 설악산 등 강원도 산간마을 곳곳에서 눈꽃 축제가 펼쳐지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 되었고, 방문객수가 가장 많다. 태백의 눈꽃 축제는 태백산 등산로 초입인 당골광장에서 펼쳐진다. 다른 겨울축제처럼 체험행사가 대부분이다. 얼음썰매와 얼음미끄럼틀, 대형 눈조각 전시와 이글루카페체험, 전통민속놀이인

팽이치기, 제기차기, 투호 등을 즐길 수 있고, 원조 석탄의 도시답게 연탄불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들을 만날 수 있다. 다른 겨울축제들이 주로 축제장 부근에만 볼거리가 집중되어 있지만, 풍부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도 태백 눈꽃 축제의 큰 매력이다. 태백석탄박물관과 한강발원지 용지,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 자작나무 숲과 고랭지 풍력발전단지, 스키장 등 관광인프라 자원이 풍부해 겨울철 가족여행지로 최적이다. **E&C**

태백 눈꽃 축제/ 1월 13일 ~ 1월 22일
(www.festival.taebaek.go.kr)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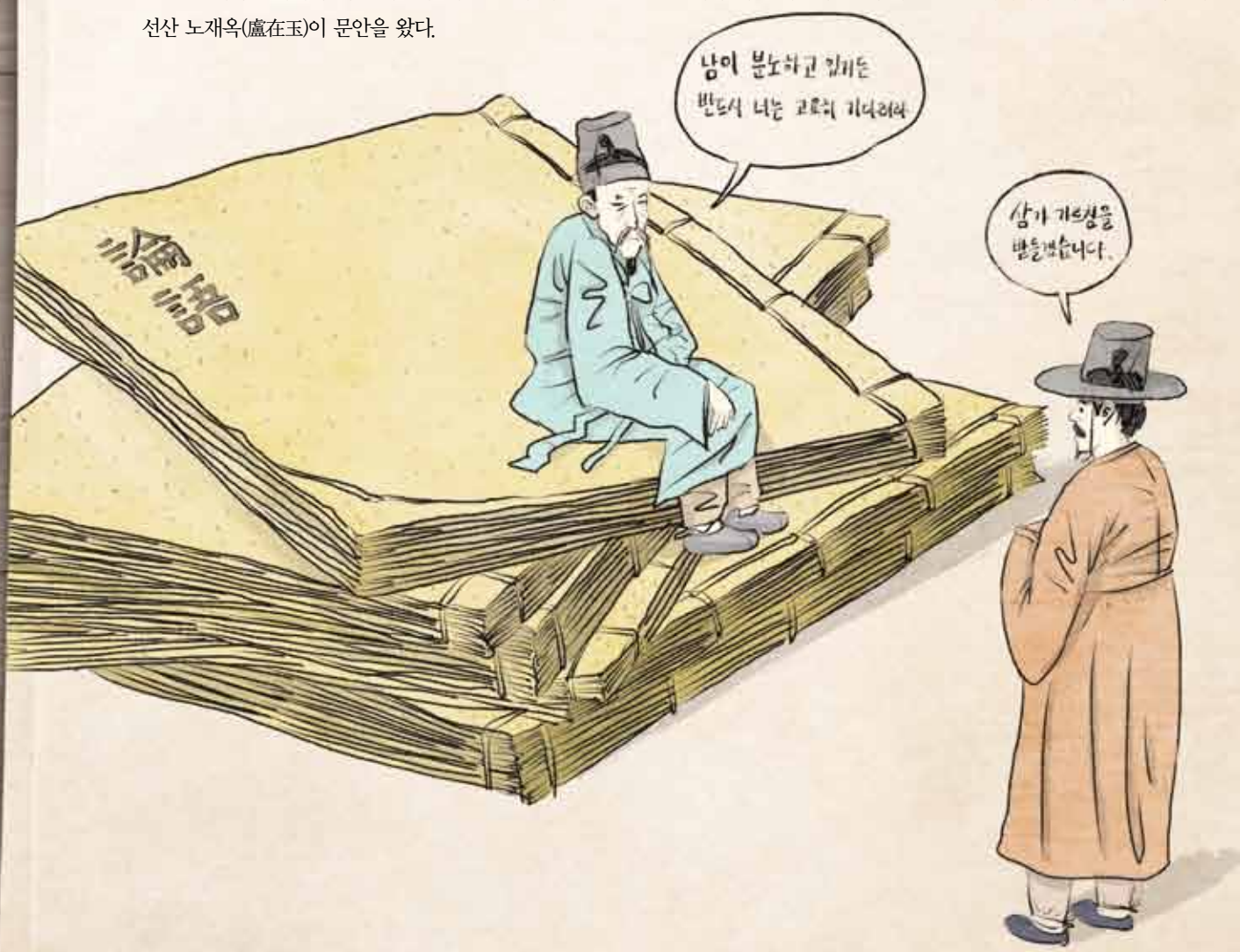
14

11 태백산 천제단 가는 길 12 정상에 자리한 태백산 천제단 13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하얀 눈꽃이 가득하다 14 소복이 눈이 쌓인 자작나무 숲

할아버지께 타인의 분노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다

신유년(1801, 순조 1), 2월 28일 갑술 조금 맑음

종형(從兄)의 젓먹이 하녀가 요절하였다. 논어「위령공(衛靈公)」을 읽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남이 분노하고 있으면 반드시 고요히 기다려라. 예전에 나의 외삼촌께서 가까운 곳에 소나무를 길렀는데, 금호(禁護)하는 것이 매우 엄하였다. 소산(素山) 김씨(金氏) 한 사람이 양심을 품고 곤욕을 치르게 하려고 종을 데리고 마구 베었다. 외삼촌께서 그것을 듣고 마을에 하인을 보내어 저지하였는데,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네 상전이 어찌 오지 않느냐?’라고 꾸짖으니, ‘저의 상전은 본디 이런 곳에는 왕래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무안해하며 도끼를 놓고 ‘내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그 뒤로 이 일에 인연하여 형과 아우처럼 친하게 지냈다. 나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친하게 된 사람들이어서 감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화낼 만한 일이 있으면 깊이 스스로에게 허물을 돌리고 상대에게 간섭함이 없어야 한다. 자신의 잘못에 이르러서는 숨기거나 꾸며 죄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더욱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나는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밤에 사품(沙品) 아저씨가 먹 한 정을 주었다. 선산 노재옥(盧在玉)이 문안을 왔다.



일기분류 : 생활일기

출 전 : 하와일록(河窩日錄)

시 기 : 1801년 2월 28일 ~

인 물 : 류의묵

주 제 : 미분류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 1801년 2월 28일, 조금 맑은 날이었다. 류의묵은 『논어』 위령공편을 읽고 있었다. 글을 마치고 할아버지께서 오늘 읽은 글들에 대해 물으셨다. 이야기가 분노에 관한 내용으로 옮겨갔는데, 할아버지가 이에 대해 조용히 말씀하셨다.

‘남이 분노하고 있거든 반드시 너는 더불어 이야기하지 말고 반드시 고요히 기다려라. 예전에 나의 외삼촌께서 가까운 곳에 소나무를 길렀는데, 애지중지하고 남들이 손대는 것을 매우 엄하게 금하였다. 그런데 소산에 사는 김씨 한 사람이 마침 우리 외삼촌과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양심을 품고 있다가, 외삼촌이 소나무를 애지중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곤욕을 치르게 하려고 종을 데리고 가서 소나무를 마구 베었다.

사람들이 와서 이를 외삼촌께 알렸는데, 외삼촌은 낯빛을 바꾸지 않고는 마을에 하인들을 보내어 저지하도록 하였다. 김씨는 하인들을 보자 ‘어찌하여 네 상전이 오지 않느냐’ 라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러자 하인이 ‘저의 상전은 본래 이런 곳에는 왕래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자 김씨가 매우 무안해하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 도끼를 내려 놓고 ‘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그리곤 외삼촌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외삼촌과 김씨는 형과 아우처럼 친하게 지냈다.

나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친하게 된 사람들이고 또 이름을 들으면 너도 알만한 사람이니 감히 이야기를 꺼내진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화낼 만한 일이 있으면 깊이 스스로에게 허물을 돌리고 상대에게 간섭함이 없어야 한다. 더욱이 자신의 잘못에 이르러서는 숨기거나 꾸며서 죄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더욱 불가한 것이다.’

류의묵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는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노라면, 아침에 읽은 책의 내용과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니, 얼마나 더 공부하고 몸을 닦으면 할아버지의 경지에 갈 수 있게 될 수 있을지... 류의묵은 학문에 대한 의지를 새삼 불태웠다. E&C

—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치 않은 이야기들

많은 이들이 ‘요즘 한국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 영화 같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런데 영화 같은 건 비단 한국사회뿐이 아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4개나 적은 건 평범한 사람들도 저마다 영화 같은 사연을 안고 살아간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다. 세상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이나 검·경,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이야기가 널려있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서 몸을 부대끼는 사람들의 이야기엔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다.

꽃집 주인

여자는 꽃다발을 만들기 전에 손님에게 사연을 먼저 물었다. “결혼 1주년인데 아내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려고요.” 여자는 결혼식 때 아내가 던졌던 부케가 조금 성숙해진 모양으로 꽃다발을 만들었다. 손님과 아내는 1년 전 생각에 드레스와 예복을 꺼내 입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아내의 손엔 부케가 들려 있었다.

6명의 여대생이 교수님께 꽃다발을 선물하고 싶어서 여자를 찾아왔다. 각자 개성이 너무 강해 꽃을 고를 때도 의견이 엇갈렸다. 여자는 개성 강한 6가지의 꽃을 모아 다발로 묶었다. 각각의 꽃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의미한다. 여자는 이런 식으로 항상 꽃다발에 이야기를 담아 손님에게 건넸다. 여자는 14년 동안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다. 조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했는데 그냥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싶어서 꽃집을 차렸단다. 꽃은 미리 사두지 않고 손님의 사연을 들은 뒤 꽃시장에 간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그러하듯, 꽃시장에도 외면 받는 꽃들이 많은데 그런 꽃으로 예쁜 꽃다발을 만들려고 애쓴다. 로즈데이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꽃집들의 대목인 기념일엔 가판을 열지 않지만 식목일엔 옥상에서 오픈마켓을 연다. 그날 만큼은 화초의 존재를 알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2년 전엔 선인장을 내놔고, 지난해는 바질, 애플민트, 로즈마리 같은 먹을 수 있는 화초를 준비했다. 서울 상수동에서 꽃집을 하는 이혜경(38여)씨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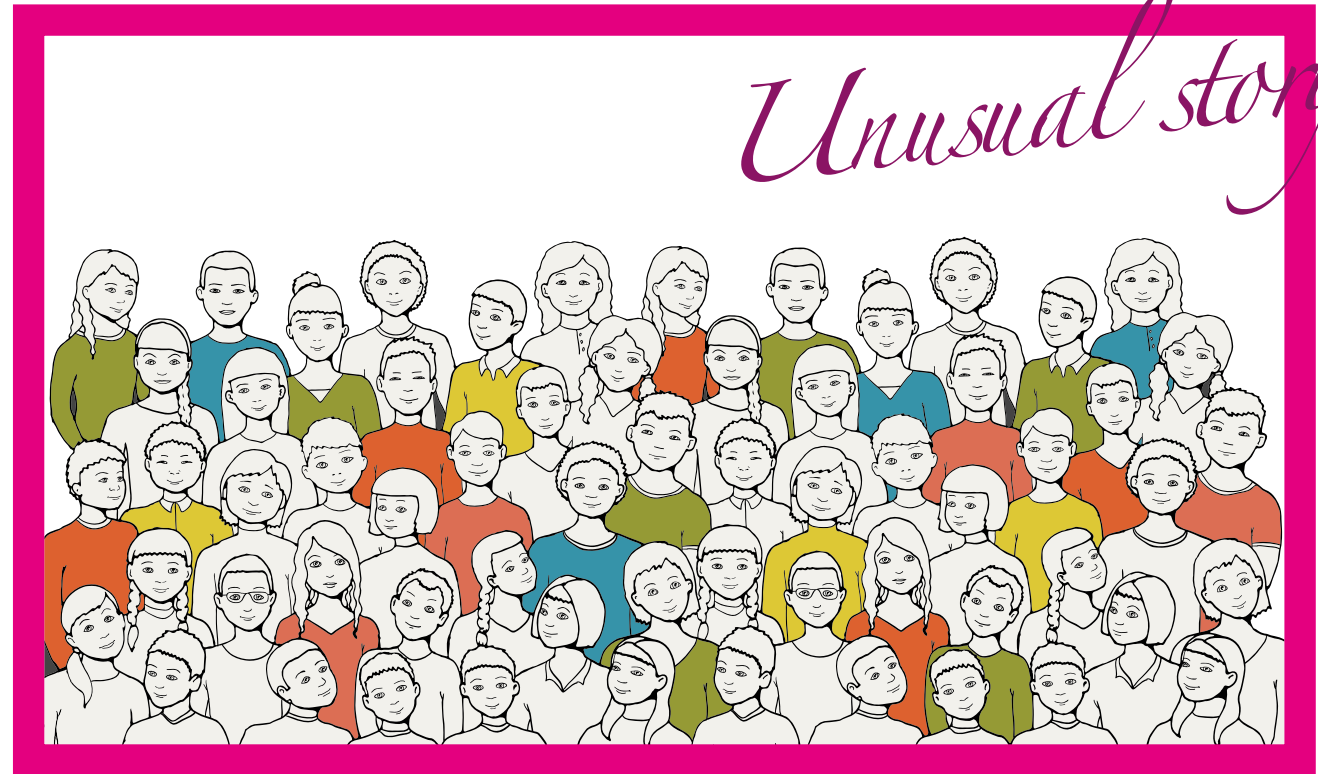
카페 주인

남자는 시와 음악을 좋아했다. 2014년 한국작가회의에서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고, 3호선 버터플라이와 허클베리핀이라는 인디밴드에서 드럼을 쳤다. 지금은 ‘마음’이라는 2인조 밴드에 몸담고 있다. 원래 ‘몸과 마음’이란 3인조 밴드였는데 기타리스트가 하와이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몸은 없고 마음이 됐다. 이곳에 카페를 차린 건 2009년. 카페 계산대 위엔 ‘마음’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다. 손님들은 마음 아래에서 주문을 하고, 돈을 지불한다. 이 카페엔 누구나 와서 전이나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다. 가난한 예술문화인들의 아지트인 셈이다. 하루는 한

70대 노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런 제안을 했다. “혹시 주말에 손님들에게 공짜로 서예를 가르쳐도 될까요?” 노인은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노인은 여기서 카페에 온 손님들과 글을 썼다. 70대와 20대는 그렇게 어울렸다. 남자는 예술을 하든 안 하든, 젊은 늙든, 카페가 누구나 와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동네 평상처럼 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건 상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상우(43)씨의 이야기다.

식당 주인

딸 딸 아들. 1남 2녀 중 둘째다. 아버지는 우리나라 전통 장을 직접 담그고 이 장으로 음식을 만드는 뒤옹박고을을 운영했다. 자식들에게 무척 엄격했다. 네 살 터울 남동생은 지금도 아버지 전화를 받을 때 무릎을 꿇는다고 했다. 대학 교수였던 둘째 딸은 강의를 마친 뒤 곧장 식당으로 달려가 손님 안내를 했다. 낮엔 교수, 저녁엔 식당 안내 직원. 2년 넘게 이런 생활을 이어가다 세종전통장류박물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장에 대해 알면 알수록 뒤옹박 장이 박물관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골목에 있는 주택을 개조해 음식점을 차렸다. 모든 음식은 뒤옹박고을의 전통 장을 이용해서 만든다. 음식점 안쪽에 남편의 작업공간이 있는데 여기엔 분리불안증이 있는 강아지가 살고 있다. 저녁 9시만 되면 찾아서 식당 운영에 방해가 될 때도 있지만 주인과 떨어져 있으면 몹시 불안해하기 때문에 집에 혼자 둘 수가 없다고 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다 보니 오다가다 보고 들르는 손님보다 단골들이 계속 찾는 편이다. 어떤 손님은 새로 사귄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일부러 찾아왔고,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면서 작별인사차 들른 손님도 있다. 여기서 소개팅을 한 뒤 결혼을 하게 된 커플도 둘이나 된다. 서울 상수동에서 식당을 하는 손유성(48여)씨의 이야기다.

자전거공방 주인

‘육체를 움직이며 땀 흘리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청년은 생각나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하나씩 지웠다. 자동차 정비는 세상을 오염시키니까 지웠고, 보석공예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웠다. 마지막까지 남은 게 자전거 공방. 청년은 원래 망치 두들기고 칼로 자르고 드릴로 뚫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 영등포 바이크아카데미와 경북 양산의 영사이클에서 수학한 뒤 자전거의 성지(聖地) 미국 오리건 주에서 자전거 제작 과정을 수료했다. 완성된 자전거를 되파는 것보다 손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면 손님의 요청대로 직접 자전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한 부부가 공방을 찾았다. 남자는 대학교수인 것 같았다. 부부는 ‘별이 빛나는 밤에’로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고흐가 활동했던 곳이 어디더라. 교수가 혼잣말처럼 중얼대자 청년은 ‘프랑스 아를’이라고 대답했다. 교수는 놀란 눈으로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여기서 자전거 수리를 하고 있나?”라고 말했는데 그때 노동자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았다고 했다.

청년의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먼 데까지 다니기가 어려워졌다. 운전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선택한 게 자전거다. 어머니의 자전거를 청년이 직접 만들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전거 공방을 해서 참 좋다고 했다. 서울 상수동에서 자전거 공방을 운영하는 김두범(34)씨의 이야기다.

평범한 이들의 이야기

네 명이 모두 상수동인 이유는 기자가 상수동에 살기 때문이다. 자주 가는 꽃집, 자주 가는 카페, 자주 가는 식당, 자주 가는 자전거 공방 주인들의 이야기다. 많은 이들이 ‘요즘 한국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 영화 같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런데 영화 같은 건 비단 한국사회뿐이 아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4개나 적은 건 평범한 사람들도 저마다 영화 같은 사연을 안고 살아간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다. 세상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이나 검·경,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이야기가 널려있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서 몸을 부대끼는 사람들의 이야기엔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다. 언론은 뉴스밸류, 즉 기사가치로 기사를 판단하는데 그들의 삶이 유명인의 삶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오늘 만난 단골식당 아주머니, 집 앞 편의점 할아버지, 양복점 아저씨, 커피숍 알바생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할 말이 많다. 다만 들어줄 사람이 없을 뿐이다. **E&C**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 귓병일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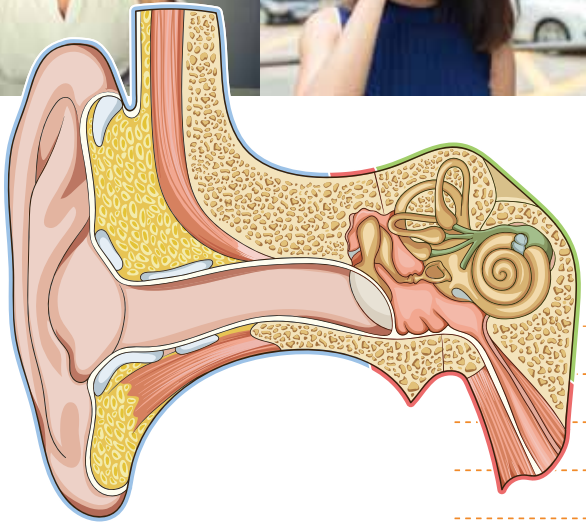
흔히 말하는 어지럼증은 생활하다 보면 종종 나타나는 증상으로 머리가 멍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잠깐 눈 앞이 캄캄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가벼운 어지럼증은 대개 피곤하면 잠깐 나타났다가 쉬면 괜찮아지는 편이며,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갑자기 눈앞이 빙빙 돌거나 주변이 흔들리는 것 같은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전정계통의 문제로 인한 증상이라고 본다. 전정계란 귀속에 있는 전정기관과 연계 되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신경계통을 말한다. 전정계 어지럼증은 주변이나 내가 빙빙 도는 느낌의 회전성 어지럼증인 경우가 많고 구역질이나 구토를 동반하고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전정계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흔히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등 세 가지가 있으며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급성 어지럼증의 약 80%를 차지한다. 주로 아침이나 새벽에 머리를 처음 움직일 때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지는 이석증이란 귓속 전정기관 안에 있어야 할 이석 조각이 떨어져 세 반고리관으로 잘못 들어가서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심하게 어지러운 증상을 말한다. 대개 누워 자다가 뒤 반고리 관으로 이석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머리를 움직일 때 반고리관 안에 들어간 이석이 같이 움직이므로 머리를 앞뒤나 좌우로 돌리면 어지럼증이 나타나는데 지속시간은 대개 30초 정도이고 가만히 있으면 차츰 가라앉는다.

치료는 이석의 크기가 작으면 녹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는데 원래는 잘못 들어간 이석을 원위 치료 되돌려 넣는 이석 정복술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다. 전정신경염은 귀속 전정기관에 연결된 전정신경에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액공급 문제가 생겨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석증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가만히 누워있는 자세 외에는 모두 어지럽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변이 빙빙 도는 느낌이 들게 된다. 초기에는 하루 이틀 심하게 어지럽고 2주 정도 지나면 차차 나아지는데, 이 증상의 지속기간 및 회복기간은 다양하다. 전정신경염 치료법으로는 도수치료와 전정재활치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약해진 전정기능을 회복시킨다. 전정신경염의 경우, 초기 발견 시 다소 어지럽더라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메니에르병은 귀속 달팽이관에 물이 차서 내이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어지럼증, 이명과 동시에 귀가 꽉 차는 느낌의 증상을 말한다. 재발이 잦은 편이며, 반복해서 재발하게 되면 점차 청력이 떨어져 난청으로 가게 되는 병이다. 평소 컨디션이나 먹는 음식과 관련이 많아서 과로나 수면부족 상태에서 짠 음식 등을 먹고 나서 귀가 멍멍해지다가 갑자기 빙빙 도는 어지럼증과 구토, 귀울림 증상이 발생하고 수시간 이상 혹은 수일간 지속된다. 메니에르병의 치료법으로는 급성기에는 귀속에 압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약을 사용하고 철저한 저염식을 한다. 만성기에는 과로를 피하고 염증과 알러지를 잘 일으키는 음식들을 피하며 가벼운 운동으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좋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원인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모두 급성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모두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 전체 이석증 환자의 50%가 5년 내에 재발하고 전정신경염의 경우 완전한 전정신경의 회복은 없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가끔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어지럼증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병 환자들은 이석증이 잘 생긴다.

평소 일찍 자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멀리해서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지럼증의 재발 방지에 중요하고 특히 술, 커피, 밀가루, 튀긴 음식처럼 염증을 잘 일으키는 음식이나 유제품이나 콩 같이 알러지를 잘 일으키는 음식은 가급적이면 멀리하는 것이 좋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서 평형기능을 좋게 해주는 것도 어지럼증의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

급성 어지럼증 중에는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같은 말초성 어지럼증이 많기는 하지만 소뇌나 뇌줄기, 대뇌의 문제 같은 중추성 어지럼증도 항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C**

조류독감과 전쟁, 예방법은 없을까?

이쯤 되면 조류독감과 전쟁이다. 도살처분 된 닭과 오리들이 20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고, 서민들의 식탁을 책임졌던 계란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치솟고 있으니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물원의 휴장으로 인해 아이들은 당분간 동물 친구들도 만나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독감(A)으로 인해 도살처분 되는 닭과 오리들의 숫자가 앞으로 3000만 마리까지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에 국내 축산 농가들은 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일대 전쟁에 들어간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19일 기준으로 도살처분 및 매몰 예정인 가금(家禽)류의 숫자는 1911만수로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까운 점은 이 같은 상황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400만 마리의 가금류들이 도살처분 되면서 역대 최악이라 평가 받았던 조류독감 사고가 불과 2년 전에 일어났고, 그 이전에도 수백만 마리의 조류들이 도살처분 되는 등 이제 조류독감은 거의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도대체 조류독감이 무엇이길래 전 세계가 그 앞에서 찢쩍매는 것일까?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생명체의 유전자까지 조작하는 이 첨단기술 시대에 어쩌서 이 같은 원시적 전염병에 속수무책일까? 조류독감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이 지긋지긋한 불청객에 대해 한 번 알아봐야겠다.

겨울철에 주로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이유는 철새

조류독감은 닭과 오리처럼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조류인 가금류나 야생 조류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이다. 급성 전염병이라 하더라도 조류독감은 그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나뉜다. 저병원성은 증상이 약해서 병에 걸렸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반면, 고병원성인 경우는 48시간 내에 100% 사망할 만큼 치명적이다.

다른 계절에도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독 겨울철에 조류독감이 많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철새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겨울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들이

다른 지역에서 조류독감에 감염된 후 찾아오면서 이를 전파시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면역력이 강한 철새들은 조류독감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지만, 양식장에서 자란 닭이나 오리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대량의 가금류가 사육되는 농장에서는 전염이 더 빨리 일어나면서 집단 폐사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조류독감은 예년보다 훨씬 더 독성이 강하다는 것이 방역 담당자들의 의견인데, 사람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조류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없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조류독감의 위험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감에 걸리지 않는

근본적인 예방 방법은 면역력 향상

가금류들이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

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류독감에 걸리는 것을 막으려면 '예방 백신'을 접종하거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다. 마치 사람이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 백신을 맞거나, 체력을 길러 스스로 극복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선 백신 접종 경우는 우리나라가 청정국의 지위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류독감 상시발생국'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것이다. 한 전문가가는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조류독감에 걸린 가금류들을 도살하듯 처분하는 이유는 바로 청정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백신 사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도살처분은 조류독감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지만, 백신 접종은 조류독감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언제 또 바이러스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조류독감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도살처분 된 가금류 수도 사상 최대인 만큼 청정국으로서의 지위 유지보다는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백신 접종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 접종이 단기적인 예방법이라면 면역력을 기르는 것은 장기적인 예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금류 양식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면역력을 기를 수 없는 이유가 움직이기조차 힘든 비좁고 열악한 사육환경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성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업자들의 하소연이다.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 공간은 최대한 비좁게 만들고, 계란은 가급적 많이 낳아야 하는 상황에서 닭이나 오리에게 면역

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류독감을 어떻게 예방해야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 도무지 판단이 서지를 않는다. 이쪽을 취하면 저쪽을 잃고, 저쪽을 취하면 이쪽을 잃어야 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것 하나만은 분명하다고 본다. 둘 다 얻을 수 없다면 보다 근본적이면 서도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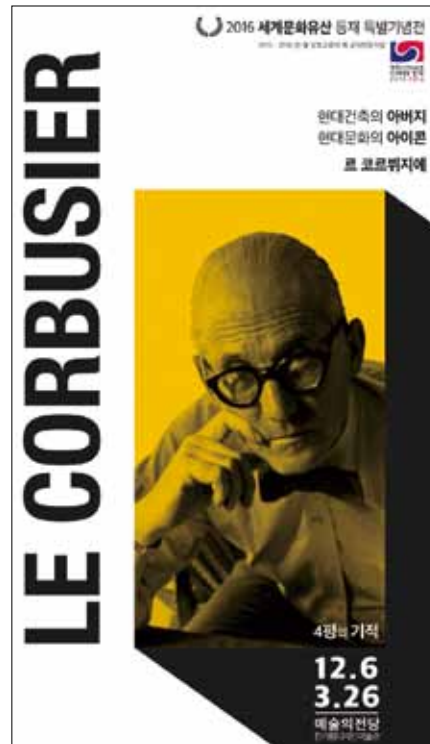
글을 마무리하려다 보니 갑자기 사람이 조류독감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전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쨌든 조류독감은 사람과 가금류가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람이 조류독감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특히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추운 겨울철이라도 손 씻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운동을 한다면 조류독감에 걸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E&C**

Culture

Exhibition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展

기 간 : ~ 3월 26일 장 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스위스에서 태어나 프랑스 국적으로 생을 마친 한 건축가의 콘크리트 건축물이 2016년 7개국에 걸쳐 17개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적 뉴스가 되고 있다. 르 코르뷔지에 서울 특별전은 전시 사상 최초로 미 공개 작품을 포함하여 200여 점에 달하는 드로잉들과, 40여 점의 건축도면, 30점 이상의 페인팅, 30여 점에 달하는 조각, 콜라주, 에나멜, 태피스트리, 모형, 영상 등을 공개한다. 세계 최대 규모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건축가이자 화가인 르 코르뷔지에의 작업들을 자세히 조명하는 역대 가장 중요한 전시로 의미가 깊다.

www.lecorbusier.co.kr

Theater

꽃의 비밀

기 간 : ~ 2월 5일 장 소 : DCF 대명문화공장

묘하게 끌리는 수상한 그들의 등장! 20만 유로보험금을 위한 발칙한 작전
이태리 북서부 지방 '빌라페로사'라는 작은 마을.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포도 농사를 하며 와인을 만드는 것이 주업이다. 남자들은 축구에 미쳐 있고, 여자들은 모여서 수다 떠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다. 왕언니 소피아, 주당 자스민, 미모 담당 모니카, 여자 맥가이버 지나. 축구에 환장하는 남편들은 모두 축구장으로 보내고 네 명의 여자들끼리 즐기는 송년회 날, 각자의 남편으로 변장할 수 밖에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과연 그들은 완벽한 변장으로 모두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

www.dmcf.co.kr



Book

열한 계단 : 나를 흔들어 키운 불편한 지식들

불편한 지식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130만 독자가 사랑한 '지대넓얏' 채사장의 색다른 인문 에세이

어떤 독서는 한 인간의 지평을 넓히지만, 어떤 독서는 오히려 그를 우물에 가둘 수도 있다. 불편한 지식만이 우물을 파는 관성을 멈추게 하고, 굳어버린 내면을 깨트리고, 나를 '한 계단' 성장시킬 수 있다. 이 책은 어느 평범한 인간이 난생 처음 책을 읽고, 질문을 만나고, 깨달음과 깨부숨을 반복해 가며 한 명의 지식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생생한 기록이다. 인문학의 최전선에서 독자와 가장 가깝게 만났던 작가 채사장은 이 책을 통해 인문학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몸소 보여준다. 그리하여 누구라도 자기만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나가면 새로운 자신을, 색다른 인생을 만날 수 있음을 말한다. 문학, 종교, 철학, 과학, 역사, 경제뿐 아니라 예술의 영역까지 아우르며 촘촘히 펼쳐지는 질문들을 따라가 보자. 때론 낱길대고 때론 울컥하며, 조금 불편해하고 가끔 편안해하며 함께 이 계단을 오르다 보면, 문득 놀라운 곳에 당도해 있을 것이다.

채사장 저 | 웨일북



Movie

재키

“모두가 기억하게 만들 거예요. 이 순간을...”

우아하고 기품 있는 스타일과 친근한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 케네디.

하지만 퍼레이드 도중 충격적인 암살 사건으로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그녀는 혼란에 빠진다. 남편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슬픔을 달랠 새도 없이, 의연하게 장례식을 준비해야 하는 그녀. 더 이상 퍼스트 레이디가 아닌 재키는 백악관을 지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곧 자신이야말로 남편의 시대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모두가 사랑한 퍼스트 레이디, 전설을 새로 쓰다!

상영중



KEPCO E&C N e w s



● 2017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2017년도 제1차 주주총회가 1월 13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매일경제 전무이사 겸 논설주간인 박재현 후보자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 2016년도 제9차 이사회 개최

2016년도 제9차 이사회가 경영진 및 비상임이사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27일 경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경영목표(안), 2017년도 정원 조정(안),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취업규칙 개정(안), 직원연봉규정 및 복지후생규정 개정(안)이 상정되어 조건부가결 및 원안 가결되었으며, 보고안건으로는 제주 해상풍력발전 IPP 사업개발 현황 보고가 상정되어 원안 접수되었다.

● 사이버 보안관제실 구축

– 기술자료 유출 및 사이버 해킹 등에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

회사는 지난 12월 27일 본사 사옥에 사이버 보안관제실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이버 보안관제실은 영상관제설비를 구축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안위협 및 기술자료 유출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전파를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관제 인력을 배치하여 그동안 보안관리가 어려웠던 내부 자료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하였으며, 관제실, 회의실 및 통신실 등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도 구축하였다. 회사는 2016년 1월 설계관련 정보시스템이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 피해 등에 대비한 설계기술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강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구원 사장은 “국가와 국민의 지원으로 어렵게 쌓아올린 기술자료의 보안과 관리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며, “특히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북대학교 김상동 총장 내방

경북대학교 김상동 신임 총장이 1월 4일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박구원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김상동 총장을 비롯한 박희동 부총장, 채수도 학생처장, 박녹 발전기금본부장 등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인재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하였으며, 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회사는 향후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지역대학들과 고급 인재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한-코트디부아르 에너지 포럼 참석

김재원 플랜트본부장은 지난 12월 5일 주 코트디부아르 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한 ‘한-코트디부아르 에너지 포럼’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했다.

김재원 플랜트본부장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2016-2020 국가개발계획 및 에너지 개발전략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향후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코트디부아르 발전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씨 사바티(Cisse Sabati) 코트디부아르 석유에너지부 에너지 총국장은 코트디부아르 에너지 국가계획을 소개하며, 양국 간의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근래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의 진출을 위해 시장조사와 아프리카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개발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 회사가 EPC를 수행한 코트디부아르 씨프렐 IV 복합화력발전소가 지난 1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고 있다. 김재원 플랜트본부장은 씨프렐 IV 사업의 하자보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 ‘더 새롬’ 활동결과 발표회 개최

원자로설계개발단의 ‘더 새롬’ 활동결과 발표회가 이광원 단장을 비롯한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2일 개최됐다. 더 새롬은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창의혁신리더로서 기본 지식함양을 위한 창의혁신리더그룹의 전문능력 제고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경험자와의 상생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활동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광원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은 “더 새롬의 건설적인 의견 개진을 환영하며, 각 부서 검토 후 현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로설계개발단은 비전 달성 촉진 및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더 새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 플랜트본부, 설계BG 기술정보교류 워크숍 개최

플랜트본부 설계BG는 12월 15일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설계BG 기술정보교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16년 상·하반기 경험자료 123건의 유형 및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와 활용방안, 2013년 하반기부터 수집된 총 267건의 경험자료를 1000MW 석탄화력사업에 반영한 결과 등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하반기 경험자료에 대한 발표와 열린 토의가 이어졌다. 플랜트본부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각 사업의 설계경험자료 공유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을 통해 공유된 정보는 각 사업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을 함으로써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KEPCO E&C N e w s



김재원 플랜트본부장은 강평을 통해 “지속적인 설계경험의 공유를 통해 자타가 공인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해외사업 개발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유된 설계경험자료는 각 기술부서 담당자들에게 전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설계경험자료 공유를 통해 기술경쟁력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 김천시의 ‘드림스타트 성과보고회’에서 감사패 수상

- ‘원자력에너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우수 사례로 선정 -

회사는 지난 12월 8일 김천시가 주관하는 ‘2016 드림스타트 성과보고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2016년도 사업성과 보고 및 2017년도 사업계획 안내를 위해 박보생 김천시장, 김천시의회 배낙호 의장, 김천시의 11개 지역아동센터 시설대표, 아동 및 학부모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회사는 지난 5월 ‘재능나눔미봉사단’을 창단하여 체험활동 및 학습멘토링 등 매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원해왔다. 특히 지난 8월에 실시한 ‘원자력에너지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원자력발전소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원전에 대한 신뢰와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이날 우수 프로그램으로 소개되었다. 회사는 ‘재능나눔미봉사단’을 비롯해 농촌지역 한방의료 지원, 배식 봉사활동, 독거노인 월동 지원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 동반성장 투자재원 사업설명회 개최

회사는 12월 14일 동반성장 관련부서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투자재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후원으로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동반성장 투자재원’에 대한 관련 담당자의 사업 이해도 제고 및 도입 검토를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성과공유확산부 조태용 부장과 엄인혜 차장을 초빙하여 동반성장 현황 및 성과공유제도와 투자재원 사업설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투자재원의 목적과 추진방향, 투자재원 도입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다. 회사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 평가와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신고리원자력 3호기 상업운전 개시

우리 회사가 종합설계 및 원자로계통설계를 수행한 신고리원자력 3호기가 지난 12월 20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신고리 3,4호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1400MWe급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최초 원전으로 UAE 수출원전의 참조발전소이다. 기존 OPR1000 대비 발전용량이 약 40% 증가된 1400MWe급이며 기존 40년 설계수명에서 60년의 설계수명을 적용했다. 또한 내진 성능에서 기존 리히터 규모 6.5 보다 향상된 규모 7.0 지진에도 구조물 및 기기의 기능을 유지하고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 신고리 3호기는 2001년 2월에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6년 8월, 설계 및 주요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9월, 부지정지공사를 착수하였고 2008년 4월, 건설허가를 취득하여 본관기초를 굴착하고 2008년 10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착수했다. 이후 2013년 5월, 고온기능시험을 완료하고 2015년 10월, 운영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연료장전과 시운전을 거쳐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되었다. 신고리 3호기는 당초 준공 예정일이 2013년 9월이었으나, 건설과정 중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설비를 대폭 보강하였고, 안전등급 케이블의 기기검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케이블을 전량 교체하면서 당초 일정 대비 39개월 지연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케이블뿐만 아니라 안전에 주요한 모든 기기를 대상으로 규제요건에 따라 검증결과를 세밀하게 조사하였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되는 모든 기기를 실증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등 전체적인 안전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였다. 신고리 4호기는 2016년 11월에 고온기능시험을 완료하고, 규제기관의 운영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201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고리 3호기는 연간 104억kWh의 전력 생산으로 국내 총 발전량의 2%를 담당하여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제3세대 신형원전 중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게 되었고 UAE 원전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해외 원전 수출의 기반도 강화하였다.



● 제6차 친절 모범직원 선정

회사는 생산성 향상과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밝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6차 친절 모범직원을 선정하였다.

구 분	선 정 자		추 천 자	
모범직원	계약실(책임급)	윤 주 민	원자로사업관리실(책임급)	서 성 택
	원자로사업관리실(원급)	이 기 정	기계설계그룹(수석급)	이 득 수
친절직원	원자력)전기기술그룹(선임급)	조 원 균	원자력)전기기술그룹(책임급)	김 성 대
	인재개발교육원(책임급)	이 은 주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책임급)	유 성 호

정치인의 전화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① 정치인, 정당, 공무원 또는 정부 부처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직원은 행동강령총괄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한 행동강령총괄책임자는 해당 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높으신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걸 어떻게 거절하나요?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을 경우 직원 스스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행동강령총괄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Inside Outside

참사랑봉사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11월 23일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단은 김천시 봉산면과 조마면에 주거하는 재가장애인 가정의 도배, 장판, 싱크대, 전구 등을 교체하고 취약시설을 보수하였다.

그리고 김천시립장애인복지관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겨울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과 정을 전달할 계획이다.

플랜트본부



김천지역 사랑의 집 학생들이 진로탐색 및 업무현장 견학을 위해 지난 11월 17일 회사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랑의 집 원장 및 중고생 등 12명이 참가하였으며, 회사소개를 시작으로 열린도서관 등 사육견학 및 발전소 설계업무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플랜트본부 직원들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재원 플랜트본부장은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에 대한 격려와 함께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회사는 고객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사우 애경사

결혼



- ▶ 플랜트)기계배관기술그룹 조종원 부장 자녀 : 12월 4일 마리아쥬스퀘어
- ▶ 노사협력실 경대현 부장 자녀 : 12월 10일 루드블랑
- ▶ 원자력)기계기술그룹 홍문표 대리 : 12월 10일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부음

- ▶ 플랜트)기계배관기술그룹 정병조 상무 장모상 : 11월 21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 ▶ 플랜트)전기계측기술그룹 박용일 부장 모친상 : 11월 21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 ▶ 원자력)기술그룹 강상호 부장 장인상 : 11월 23일 광주역장례식장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정일선 부장 부친상 : 11월 26일 인하대병원
- ▶ 홍보실 이경미 대리 시모상 : 11월 29일 보라매병원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박정호 부장 장인상 : 12월 7일 진주 경상대장례식장
- ▶ 원자로)기계설계그룹 남금희 차장 장인상 : 12월 9일 광주 서구장례식장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김병수 부장 장모상 : 12월 11일 구미 해원장례식장
- ▶ 원자력)전기기술그룹 정유철 대리 장모상 : 12월 13일 인천 나은병원
- ▶ 원자로)유체계통설계그룹 박병호 부장 부친상 : 12월 15일
- ▶ 원자력)기술그룹 박정수 부장 장인상 : 12월 21일 전북대병원
- ▶ 감사실 최희완 부장 장인상 : 12월 23일 전북대병원
- ▶ 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김원길 부장 부친상 : 12월 25일 안양 메트로병원
- ▶ 원자력본부 조덕제 차장 부친상 : 12월 28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 ▶ 신성장기술전략실 정성운 부장 모친상 :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알립니다

봉사단, 동우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실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우회 동정

2017년 신년 인사회 개최

2017년 신년 인사회가 지난 1월 9일 선릉역 동보성 중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신년 인사회에는 이종훈 전임사장 외 역대 사장들을 비롯한 회원 100여명과 한국전력기술(주) 박구원 사장을 포함하여 전 임원진, 박재석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부음

- 이흥찬 회원 모친상 : 12월 24일 경찰병원
- 이용진 회원 모친상 : 12월 24일 안동 유리한방병원
- 장광윤 회원 부친상 : 1월 3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 변재엽 회원 장모상 : 1월 4일 경남 창원 연세병원
- 최박렬 회원 모친상 : 1월 17일 강남성모병원
- 김병욱 회원 장모상 : 1월 10일 삼육서울병원
- 이병규 회원 본인상 : 1월 22일 울산병원
- 장기호 회원 본인상 : 1월 22일 분당서울대병원



스웨이드 소재 신발, 세탁 후 손상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Question

물세탁 후 갑피 스웨이드 소재가 딱딱해져

김 씨(남, 30대, 부산)는 2015년 11월 약 600,000원에 구입한 스웨이드 소재의 스니커즈 신발을 2016년 3월에 동네 세탁업체에 세탁을 맡겼는데, 세탁업자에게 세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세탁비용 10,000원을 지불하였다. 세탁 완료 후 신발을 확인하니 갑피의 스웨이드 소재가 딱딱해졌고, 원래 색상과 달리 탈색이 된 것을 확인하고 세탁업자에게 구입가 배상을 요구하니, 신발은 물세탁을 할 수 밖에 없고 물세탁 시 스웨이드 소재가 약간 손상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nswer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본 건 신발소재(스웨이드, 가죽)의 특성상 물세탁을 한 경우에는 경화, 이염, 변·퇴색 현상이 발생함. 따라서 세탁업자는 물세탁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전고지를 하고 소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세탁을 하여야 배상 책임이 없음. 세탁 전 소비자의 동의가 없다면, 물세탁으로 인해 스웨이드 및 갑피 가죽이 훼손되었으므로 세탁한 자의 과실로 판단됨.

물세탁 시 신발 손상에 대한 가능성을 세탁업자가 사전에 고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 조치가 우선이고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건과 같이 스웨이드 소재를 물세탁하여 경화 및 탈색이 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구입가, 구입일을 고려한 신발의 잔존가치에 대해 금전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본 건의 세탁업자는 소비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물세탁 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나, 세탁과정에서 신발 훼손 가능성이 있다면 세탁업자는 세탁전문가로서 소비자에게 훼손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면, 세탁업자가 김 씨에게 신발 잔존가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김 씨는 구입영수증이 없는 관계로 구입가격 및 구입일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청인이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업자는 세탁요금의 20배(20만원)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C**

세탁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세탁서비스 이용 후 세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구입 및 세탁관련 입증자료가 없다면 배상액 산정 등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물건 구입영수증이 있다면 보관을 하도록 하고, 세탁물 접수 시 세탁의뢰일자, 세탁물의 하자유무, 세탁요금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특히 스웨이드 소재의 신발인 경우 물세탁 시 이염·탈색·경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탁방식과 손상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문의한 후 세탁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발

겨울의 빈발이 황량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름의 찬란함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발을 가득히 채웠던 여름날의 그 수많은 생명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해를 살면서 그 혼한 자신의 지나온 발자국과 채취도 인지하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빈발의 치열함과 찬란함을 인지하겠는가!

시간이 나거들랑 넘쳐났던 생명이 요동치는 여름날의 발흥을 가만히 만져보자. 동안거로 쉬고 있는 흙을 냄새 맡고 느끼는 것만으로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자. 수고 많이 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리고 올해 또 다시 힘내자고!!

글·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부장